

대학 최고 특급사수들 금빛 총성 '탕탕탕'



스포츠 포커스

남부대 사격팀

고교시절 무명의 설움을 털고 대학에서 신바람 나게 '금빛총성'을 울리는 명사수들이 있다. 바로 남부대 사격팀이다.

이들은 중·고교 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채 대학 진로를 놓고 운동 지속 여부를 여러 번 고민했던 사실상 '사격부진아'였다.

하지만 이들의 현재 위상은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

이전 전국 무대에서 어느 누구도 앞잡아 볼 수 없을 만큼 사격 인재들로 쫓겼다.

특히 소총 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기량을 갖춰 되레 다른 팀 선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남부대는 지난 3일 막을 내린 제22회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에서 이를 입증했다. 50m 소총 4개 부문을 휩쓰는 등 이 대회에서 총 금 4, 은 1, 동 2개를 획득하며 대학 최강의 사격팀임을 과시했다. 또 최선호(2년)·정주영(4년) 선수는 대회 3관왕의 영예도 안으며 '특급사수'의 자리도 굳게 지켰다.

올해로 창단 6년째를 맞이하는 남부대 사격팀이 이렇게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은 몇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는 선수들의 강한 정진력이다. 둘째, 하루 6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을 선수들 자발적으로 소화해 내고 있다는 것. 셋째, 전국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실내연습장을 갖추고 있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창단 초반에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 나섰다. '유망주'나 '스타급'은 엄두도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운동만큼은 계속 하고픈 의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앞세워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다. 코칭스태프는 이들에게 다그치는 '체적' 보다는 격려하는 '담금'을 선택했다.

또한 선수들은 좀처럼 성적이 나지않는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바꾸기도 하고, 자세도 달리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훈련'으로 새로운 도약의 꿈을 키워왔다.

사격팀의 하루 훈련은 결코 녹록치 않다. 매

일 멀리 떨어져있는 과녁을 향해 묵묵히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오전엔 공기총, 오후엔 화약총 연습 그리고 저녁엔 자신이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하는 것으로 6시간의 하루 훈련을 마친다.

특히 자세훈련 중에는 남부대만의 '지옥훈련'이 있다.

중량 8kg의 철제모형 총을 들고 1시간 동안 사격자세를 갖추는 훈련이다. 또 모형 총에 2kg의 모래주머니를 싸매 더 무거운 중량으로 사격자세를 취한다. 총을 받치는 팔의 힘을 키워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련은 다른 종목의 어느 체력훈련이나 인터벌 훈련 못지않게 사격선수들에게 혹독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총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강한 팔 힘이 생긴다.

미세한 차이가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는 만큼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자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옥훈련의 대가는 바로 전국대회에서 나타



남부대사격팀은 8kg의 철제 모형 총을 가지고 1시간씩의 힘든 사격자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2kg의 모래주머니도 추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훈련은 사격자세를 갖췄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팔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봉황기대회 50m 복사에서 남부대는 최선호 선수가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수립한데 이어 단체전에서 대학신기록을 다시 쓰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남부대 도약의 또 다른 힘은 바로 최신의 시

야고 오직 훈련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선수들 사기 증진에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아쉬움이 있다면 선수들의 합숙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것. 남부대 전경윤 코치는 "대부분 타지역에서 유학 온 선수들이 평소에는 학생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하는 방학 때 마땅히 합숙할 곳이 없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 31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남부대사격팀은 현재 최선호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고 있으며, 주장 이상진과 이자용·김용진은 국가대표 예비군에 속해 있다.

이들도 처음엔 각광받지 못했던 '부진아'에서 당당하게 선망의 대상인 '특급선수'로 큰 것이다.

이들의 뒤를 이어 꾸준히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사격명문으로 남부대의 명성이 계속 이어질 기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교시절 무명 설움 털고 '명사수' 변신을 대학연맹기 전국대회 금4·은1·동2 최고 시설서 맹훈련...정상 '0점조준' 끝

났다. 2년 전부터 전국 정상권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남부대사격팀의 꾸준한 노력은 이제 메달 색깔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 수립이라는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다.

설을 갖춘 연습장에서 나온다. 3년전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계기로 건립된 연습장에는 10m 사대가 무려 66개나 놓여져 있고, 여유있게 여러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연습장을 갖추기 전까지는 타 시·도를 다니며 '구걸훈련'을 했던 이들이 이제 눈치보지

신기록 정조준 최근 끝난 제 22회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 사격대회에서 3관왕을 기록한 정주영 선수.



하루 6시간씩의 고된 훈련을 소화하면서 대학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남부대 사격팀이 올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인사)

▶ **펜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사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를 갖춘 비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움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전원주택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연 25%이상 보장되는 들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금산공인중개사
T.081-5886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유 허가 특 -미양에서 광주상행신 주유소부지 -2010년 8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입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 창고 분할 매매가능
- 물류, 창고부지로 최적지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한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아파트론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지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무인빌 매각공고

◆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 **특장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